

-(으)ㄹ락 말락 하다

~할 듯 말 듯, 겨우

어떤 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상태, 즉 거의 일어날 듯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. 짝을 이루는 락이 두 상태를 맞세우고, 그 사이에 걸쳐 있는 모습을 그림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반침 없음	-ㄹ락 말락	들리다 → 들릴락 말락
반침 있음	-을락 말락	당다 → 당을락 말락
ㄹ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락 말락
주로 뒤에 오는 말	하다	당을락 말락 했다
명사 앞	-(으)ㄹ락 말락 한	들릴락 말락 한 소리
망설임을 말할 때	-(으)ㄹ까 말까 하다	갈까 말까 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 방법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. 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. 동사에 락, 이어서 말다에 락을 붙이고, 보통 뒤에 하다가 옵니다.

이 표현은 막 일어나려는 경계: 손끝이 당을락 말락 했다는 상태를 묘사합니다. 손끝이 당을 듯 말 듯한 모습입니다. 보는 사람은 무언가가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

사람의 망설임을 나타내는 -(으)ㄹ까 말까 하다와 달리, 이 표현은 물리적·감각적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. 아무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명사 앞에서는 -(으)ㄹ락 말락 한이 됩니다: 들릴락 말락 한 소리.

■ 예문

- 1 두 사람의 손끝이 당을락 말락 했다.
- 2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다.
- 3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갈락 말락 하고 있었다.
- 4 눈물이 떨어질락 말락 눈가에 맺혔다.
- 5 모양이 겨우 만들어질락 말락 한 상태였다.
- 6 잠이 들락 말락 할 때 전화가 울렸다.

■ 비교

-(으)ㄹ까 말까 하다

형태는 비슷하지만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. -(으)ㄹ까 말까는 사람이 선택을 저울질하는 것이고, -(으)ㄹ락 말락은 사물이 경계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.

갈까 말까 했어요. (결정하지 못했다) / 당을락 말락 했다. (거의 당을 듯했다)

-(으)ㄹ 뻔하다

뻔하다는 이미 지나간, 대개 아찔한 일을 전하고, -(으)ㄹ락 말락은 걸쳐 있는 상태 자체를 흔히 담담하게 묘사합니다.

떨어질 뻔했어요. (거의 떨어질 뻔했다) / 떨어질락 말락 했다. (떨어질 듯 말 듯했다)

-(으)ㄹ 정도로

정도로는 어디까지 갔는지 정도를 재고, -(으)ㄹ락 말락은 정확히 그 경계에 놓입니다.

안 들릴 정도로 작았다. (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) / 들릴락 말락 했다. (겨우 들릴 듯 말 듯했다)

■ 주의

- ✗ 모임에 갈락 말락 고민했어요.
○ 모임에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.
결정을 저울질할 때는 -(으)ㄹ까 말까를 씁니다. -(으)ㄹ락 말락은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.
- ✗ 손끝이 당을락 했다.
○ 손끝이 당을락 말락 했다.
짝은 고정되어 있습니다. 한쪽만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.
- ✗ 들릴락 말락 소리로 말했다.
○ 들릴락 말락 한 소리로 말했다.
명사 앞에서는 관형어 역할을 하므로 한이 필요합니다.